

디자이너 대회 및 어울림

1971년 11월 20일 오전 11시부터 반도호텔 다이너스티 룸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168명의 디자이너가 참석, 우리나라 앞날의 디자인 계의 활로를 모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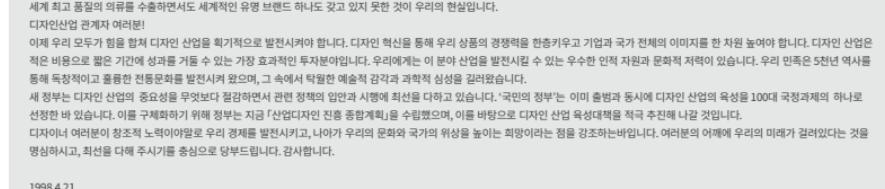
격동하는 국제 정세에 따른 경제 현황에 대처하여 우리나라의 수출 진흥의 국책에 디자이너로서는 어떻게 가야 해야 될 것인지 각각 가슴속에 깊이 새겨 각오와 다짐의 계기가 되었으며, 이 디자이너 대회가 급진적인 디자인계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998년 4월 21일 KIDP와 한국디자인법인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코엑스 국제회의장에서 '98 한국디자이너대회-어울림' 행사가 개최되어 '디자인 혁명, 수출 2배, 경제 르네상스'라는 주제로 김대중 대통령과 디자이너 700여명을 비롯하여 정부, 문화계, 교육계, 언론계 인사 등 모두 1천여 명이 참석하여 디자인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IMF 경제위기 극복 결의를 다졌다. '98 한국디자이너대회' 행사명에 같이 붙어있는 '어울림'은 ICOGRADA 2000과 ICSID 2001의 주제이기도 하였다. '어울림'은 우주의 음양원리를 바탕으로 동양과 서양, 인간과 자연, 기술과 정신, 남과 여, 빈과 부, 남과 북 등 모든 대립적 요소들을 하나로 어우르는, 그래서 새롭게 완전한 하나를 만드는 우리 고유의 사상으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세계 디자인계의 비전과 디자인 이념으로 제시되었다.

제 1회 전국 디자이너 대회 (1971년도)



98년 한국디자이너대회 어울림



디자이너 여러분!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와 경제가 하나가 되는 문화경제의 시대가 될 것이며, 두뇌강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저마다 자신의 부문 놀리기 위해 국가경쟁력을 최고로 강화시키고 있으며,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에 인적, 물적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출확대를 통해 경제를 회생시켜 하는 우리는, 이와 같은 세계적 조류에 하루 빨리 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우리 산업에 우리의 문화와 창의적 아이디어를 접목시킨다면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며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자인 산업과 같은 시대적 요구를 가장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핵심적 문화산업입니다. 우리는 디자인을 바탕으로 수출의 길이 보이다는 수출입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디자인은 제 2의 기술개발이고, 디자인 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글뚝없는 공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디자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디자인 산업은 선진국은 물론 후발 개발도상국보다도 뒤쳐져 있습니다. 세계 최고 품질의 의류를 수출하면서도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디자인산업 관계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디자인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디자인 혁신을 통해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한층 키우고 기업과 국가 전체의 이미지를 한 차원 높여야 합니다. 디자인 산업은 적은 비용으로 짧은 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분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분야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문화적 저력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5천년 역사 통해 독창적이 융통한 전통문화를 발전시켜 왔으며, 그 속에서 탁월한 예술적 감각과 과학적 성장을 길러왔습니다. 새 정부는 디자인 산업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절감하면서 관련 정부의 임하고 시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이미 출범과 동시에 디자인 산업의 육성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금 '산업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 산업 육성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디자이너 여러분이 창조적 노력으로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우리의 문화와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희망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충실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8.4.21
대통령 김대중